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2, Vol. 16, No. 1, 19~34

환경적 가치지향과 결과지각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재휘 · 박유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이 환경행동으로 이행되기는 어렵다. 이는 환경문제가 개인적 이익과 집단적 이익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개인적 이익과 집단적 이익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름을 전제하고, 개인이 가지는 가치지향과 환경오염 및 환경행동 결과에 대한 지각이 환경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조사연구 결과, 환경적 가치지향과 결과지각 수준에 따라 환경행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태가치지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중심가치지향과 공동체중심가치지향을 가진 사람에 비해 환경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한 지각과 환경에 대한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한 지각이 모두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결과지각의 범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행동 수행수준이 가장 낮은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에서는, 환경오염 결과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이 될 때에만 환경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환경, 환경행동, 환경적 가치지향, 결과지각

지난 30년에 걸쳐서, 심리학자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 즉 환경행동을 수행하도록 이끄는지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많은 연구들이 인구통계적 변인(가령,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교육수준, 인종, 종교 등), 태도, 신념, 성격 등을 환경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가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Oskamp, Burkhardt, Schultz, Hurin, & Zelezny, 1998; Schultz & Oskamp, 1996; Vining & Ebreo, 1990).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사회-인구통계적 변인에서의 차이가 환경행동 및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신념 등과 같은 사회심리학적인 변인을 통해 환경행동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Dietz, Stern, & Guagnano, 1998).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으나, 일반적으로 그 효과의 크기가 작고, 타당한 이론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Schultz & Zelezny, 1998). 가령 환경정보 혹은 지식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환경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 이 논문은 2001년도 두뇌한국 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환경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Stern, 1999), 환경관심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은 환경관심이 다양한 환경보존 행동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Ebreo, Hershey, & Vining, 1999). 또한 비록 태도가 일반적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하더라도, 몇몇 연구들은 환경행동을 예측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Diekmann & Preisendorfer, 1998). Diekmann과 Preisendorfer(1998)에 따르면, 환경태도와 자기보고된 환경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을 뿐 아니라 환경태도와 관찰된 환경행동의 비교에서도 불일치가 있었다. 또한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환경행동 수행을 관찰했을 때, 환경행동의 유형에 따라 수행수준에 불일치가 존재했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행동이 기본적으로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때때로 즉각적인 개인의 이익과 충돌하게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집단 상황에서 개인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위한 단기적인 개인적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장기적인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제한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개인들은 즉각적인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받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절제하는 편이 모두에게 보다 이익이 될 것이다.

환경문제의 이러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자들은 환경보존을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Karp, 1996). 사회적 딜레마의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환경보호는 개인적인 이익과 집단적인 이익 사이에 갈등을 제공한다. 집단적으로, 사람들은 환경보호에 찬성하지만 좀처럼 공동의 비용을 분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은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보호를 통해 받는 혜택은 추상적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반면, 환경보호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제품이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며 환경행동의 실천은 불편한 생활을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는 오존파괴의 원인이 되고, 무심코 사용하는 종이 한 장이 삼림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생활 쓰레기나 세제는 하천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누구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Schultz, 2000). 즉,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며,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개인에게 중요하게 지각될수록 환경행동의 실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환경행동의 실천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보다 환경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개인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면, 환경행동의 실천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염려, 환경행동의 실천은 개인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환경적 가치지향과 환경행동

환경보존을 사회적 딜레마의 문제로 보는 연구들은 종종 사회적 가치지향(social value orientation)에서 개인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가치에서의 개인차는 전형적으로 타인들과 상호연관된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 중 어느 편에 개인적인 중요성을 귀속시키느냐의 문제로 규정된다. 자기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중요성을 귀속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사회-이타적 가치(social-altruistic value)」라 한다(Joireman, Lasane, Bennett, Richards, & Solaimani, 2001).

많은 연구자들이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이타적 가치」와 환경행동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해 왔다. 가령, Schultz와 Zelezny(1998)는 가치, 환경파괴 결과에 대한 인식, 책임감의 귀속, 그리고 환경행동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기초월적 가치와 환경행동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chwartz(1992)는 동기유형에 따라 「자기이익 대 자기초월 차원」과 「보전성 대 변화개방성 차원」이라는 두 차원으로 가치차원을 분류하였다. 「자기이익 대 자기초월 차원」은 자기중심적 관심과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에 관련된 가치차원이다. 반면 「보전성 대 변화개방성 차원」은 안정성과 자연현상을 보전하도록 동기화되는 가치와 불확실한 방향으로 지적·정서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동기화하는 가치에 관련된 차원이다. Karp(1996)는 Schwartz의 이차원적 가치가 환경보호 행동을 설명한다고 주장하고, Schwartz의 이러한 동기적 유형과 가치차원이 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동, 특히 환경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Stern, Dietz, & Kalof, 1993; Vinning & Ebreo, 1990)은 이타적인 동기만이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Vinning과 Ebreo(1990)는 재활용 경험 여부를 가지고 재활용자 집단과 비재활용자 집단을 구분하여 이들 집단의 동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편의성 추구, 가계 상황, 경제적 이유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재활용자 집단의 이타적인 동기가 강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측과는 달리, 두 집단간에 이타적 동기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편의성 동기와 금전적 동기에서는 차이를 보여,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타적인 동기보다는 이기적인 동기가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 Stern, Dietz 및 Kalof(1993)는 조사연구를 통해 타인의 복지에 대한 가치는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가치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이타적 가치 뿐 아니라 자기중심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도 환경친화적인 소비자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환경행동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지향」에 관심을 가지는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이 가치를 두는 대상에 따라 환경적 가치지향을 「자기중심적 가치(egocentric value)」, 「사회-이타적 가치(social- altruistic value)」, 「생태 가치(biospheric value)」라는 세 가지 가치지향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Schultz, 2000; Stern & Dietz, 1994).

Stern과 Dietz(1994)는 이 세 가지 유형의 가치지향이 환경정의에 관한 신념의 근거를 제공하며 환경행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자기중심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와 독립적인 존재로 보며, 자신의 이익추구 행위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 조직, 사회, 국가 및 생태계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자신에 대한 보상이나 해로운 결과의 지각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반면, 사회-이타적 가치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상호연관된 존재로 인식하고, 인류의 이익, 사회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생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구 생태계의 일부로 규정한다. 이들은 인간만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모든 생물들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보호되어야한다고 믿는다.

Schultz(2000)는 자기중심, 사회-이타, 생태의 세 가지 가치차원이 상호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은 타인이나 생태계의 안전과 이익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지만, 사회-이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은 사회 안에 개인을 포함시켜 생각할 것이며, 생태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 가지 가치는 환경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차원들이며, 개인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지향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진다고 지각하는 대상의 범주를 얼마나 넓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만을 자신과 관련된 대상의 범주로 규정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주의자이다. 반면,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뿐 아니라, 사회 전체와 그 구성원들 모두를 자신과 관련된 대상의 범주로 규정하는 사람은 이타주의자이다. 또 자신과 관련된 대상의 범주를 지구 자연환경 전체로 규정하는 사람은 생태주의자이다. 즉 환경적 가치지향은 개인이 가치대상들 중 어디에 중요성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환경행동을 수행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수질보호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는 가치에 따라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공중보건이나 수중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비록 자기중심가치가 흔히 환경 운동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Clark, 1995; Oskamp, 2000), 환경 파괴가 자기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지각되는 상황에서는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들도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대조적으로 생태가치는 보다 특정한 주제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보다 추상적인 환경 문제에 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예측된다(Schultz, 2000). 가령,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대기 오염에 대해서 사회-이타가치를 가진 사람만큼 신경을 쓸 수는 있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환경행동을 촉발하는 것은 환경오염 결과가 개인에게 가치있는 대상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각이다.

결과에 대한 지각과 환경행동

환경오염의 결과, 혹은 개인의 행위결과에 대한 지각이 환경맥락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환경행동을 이타적 행동으로 보는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Guagnano, Dietz, & Stern, 1994, 1995; Stern, Dietz, & Kalof, 1993). 결과의 지각을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Schwartz(1970)의 규준-활성화 모델(norm-activation model)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규준-활성화 모델은 개인들이 도덕적 의무감(개인의 도덕적 규준)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결과에 대한 인식), 그들이 개인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통해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자신에 대한 책임감의 귀속)이라고 믿을 때, 이타적 행동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Karp, 1996). Schwartz의 모델은 무연 휘발유의 구매, 에너지 보존, 재활용, 정치적인 행동을 취할 의사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환경 관련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Stern & Dietz, 1994). Hopper와 Nilsen(1991)의 연구와 Vining과 Ebreo(1992)의 연구는 Schwartz의 이타주의 모델을 통해 재활용 행동을 예측하였으며, Stern, Dietz, 및 Kalof(1993)는 이 모델이 친환경적 행동의도를 예측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Joireman(2001) 등은 Schwartz의 모델을 확장하여, 사회적 가치지향(social value orientation)과 미래 결과에 대한 고려(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라는 두 변인이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개인이 자기 행위의 개인적 결과와 사회적 결과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에 중요성을 귀속시킬 때, 환경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Joireman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지향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지향적인 사람들은 더 강한 환경의도를 보였으며, 환경조건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있어서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미래 결과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환경행동의 수행의도가 더 높았으며, 환경행동에 대한 관여가 더 컸다.

Strathman, Gleicher, Boninger, 및 Edwards(1994)는 자기 행동의 즉각적인 결과와 지연된 결과에 중요성을 귀속시키는 데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고 주장하고, 미래 결과에 대한 고려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들은 환경행동의 장기적인 혜택에 의해서 설득이 더 잘 되며, 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비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높고, 사회적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음을 입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친사회적이고 미래결과에 대한 고려가 더 높은 사람은 환경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사회-이타적 가치지향만이 환경행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중심가치 역시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자기중심가치를 가졌다하더라도 환경오염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지각될 경우 환경에 관심을 가지며 환경행동의 수행이 증가할 것이다. 반드시 생태가치를 가진 사람만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무감각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세 유형의 가치가 모두 특정한 문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각각 다른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자기중심가치에 비해 생태가치나 사회-이타가치가 보다 광범위한 행동 동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기중심가치는 자신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중심가치를 가지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 반면, 개인적인 비용이 높은 것으로 지각될 경우 환경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Schultz, 2000). 그러므로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은 사회-이타가치나 생태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환경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이유는 합리적 선택 모델(rational choice model)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Bamberg, Kuhnel, & Schmidt, 1999). 합리적 선택 모델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행동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령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더 빠르다거나, 편하다거나 하는 등의 개인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집단적 이익이나 환경에는 해가 되는 일이다. 합리적 선택 모델에 따르면, 환경행동은 다양한 행동과 연합된 행동결과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동기화된다.

Diekmann과 Preisendorfer(1998)는 합리적 선택 모델을 통해 사람들의 환경의식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이유, 그리고 다양한 환경행동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개인적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환경의식이나 환경지식이 환경행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환경의식이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행동전략을 "저-비용 전략(low-cost strategy)"이라고 한다. 즉 사람들은 중요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환경태도를 따르지만, 개인적인 비용이 클 것으로 지각되는 상황에서는 환경의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비용은 재정적 지출, 부가적 시간, 불편, 또는 다른 주관적으로 규정된 행동 습관 등이 될 수 있다. 환경윤리나 환경지식에 따라 환경태도와 행동을 조화시키는 것은 저-비용 상황에서만 작용하는 인지적 기제로 한정될 수 있다(Diekmann & Preisendorfer, 1998).

저-비용 가설과 일치하는 증거는 다른 환경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Derksen과 Gartrell(1993)은 구조화된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때에만 환경태도가 재활용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uagnano, Stern, 및 Dietz(1995)는 외적인 조건의 영향력이 커질 때 환경행동에 대한 태도의 영향은 예측력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합리적 선택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수행하는 반면, 개인적인 비용이 높은 것으로 지각될 경우 환경을 해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합리적 선택 모델은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환경행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상황에 따른 환경행동의 차이를 주요 변인으로 다루고 있으며, 환경적 가치지향의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연구의 가설

환경오염의 결과가 자신에게 가치있는 대상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지각이 될 때 환경행동이 촉발된다는 것은, 가치차원에 따라 환경행동을 촉발하는 결과지각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타행동을 활성화하는 요인으로서 미래결과의 지각을 강조해 왔으나, 개인이 가지는 가치지향에 따라 결과의 지각이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의 결과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지각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결과는 다양하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오염의 다양한 결과에 대한 지각이 환경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결과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할 때 환경행동의 수행이 증가할 것이지만, 사회-이타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환경행동을 수행할 것이다. 반면 생태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 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환경오염의 결과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환경행동을 수행할 것이다. 개인이 가지는 가치지향이 무엇이든 간에,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은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결과 자체보다는 환경오염의 결과가 자

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다양한 결과들을 보다 세분하여 다양한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가치의 영향을 어떻게 중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우선 환경과 관련한 개인의 가치지향이 Stern과 Dietz (1994)의 주장과 같이 자기중심주의, 사회-이타주의, 생태주의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 세 가지 가치차원을 축으로 가치지향 집단을 분류하고자 한다. 가치지향 집단은 개인이 어떠한 가치에 비중을 두는지에 따라,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자기중심주의적 가치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중심가치지향 집단(사회-이타주의적 가치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집단), 생태가치지향 집단(생태 가치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집단)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개인이 가지는 가치지향에 따라 전반적인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즉,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가치 대상은 자기 자신에 국한되므로,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의 환경행동은 공동체중심가치지향 집단이나 생태가치지향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환경행동을 보일 것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개인의 결과지각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과 환경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행위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미래결과에 대한 지각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결과가 가치있는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의도가 달라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Joireman 등, 2001)에 따라, 환경오염 결과에 대한 지각 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이 수행하는 환경행동의 결과에 대한 지각이 환경행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한 지각이 가치지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중재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한 지각을 환경오염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 사람 또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으로 세분하고, 환경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결과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생태중심가치지향 집단의 환경행동 수행이 가장 높고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의 환경행동 수행이 가장 낮을 것이다.

1-2 생태중심가치지향 집단의 환경정보탐색행동이 가장 높고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의 환경정보탐색행동이 가장 낮을 것이다.

가설 2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의 결과지각에 따라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환경오염의 결과를 지각할 때, 환경행동수준이 높을 것이다.

2-2 자신의 행위결과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각할 때, 환경행동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결과 지각의 범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자기중심가치지향집단은 환경오염의 결과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할 때 환경행동수준이 높을 것이다.

3-2 공동체중심가치지향집단은 환경오염의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할 때 환경행동수준이 높을 것이다.

3-3 생태중심가치지향집단은 환경오염의 결과의 모든 범주에서 환경오염 결과의 영향을 높게 지각할 때 환경행동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가치지향과 결과지각에 따른 환경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234명

의 주부를 편의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을 주부로 한 것은 본 연구에서 환경행동으로 고려하여 측정한 변인이 환경친화적 구매행동, 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수질보호 등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행동이었으며, 이러한 행동들의 주체는 주로 주부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3.6세로, 25세에서 60세 사이에 분포하였다.

조사도구

질문지는 환경에 관련된 가치, 환경오염 결과에 대한 지각,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행위결과의 지각, 환경행동의 실천정도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들은 7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응답자의 환경에 관련된 가치와 환경문제와 관련한 개인의 결과지각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개인의 결과지각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결과의 영향에 대한 지각과 환경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행위결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미래결과에 대한 지각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결과가 가치있는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의도가 달라진다는 기존의 연구들(Joireman 등, 2001)에 따라, 환경오염 결과에 대한 지각 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이 수행하는 환경행동의 결과에 대한 지각이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환경에 관련된 가치 환경에 관련된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은 개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자기중심가치, 사회-이타가치, 생태가치로 구분된다는 기존 연구들(Stern & Dietz, 1994; Schultz, 2000)의 틀에 따라, Schultz(2000)의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몇 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나는 환경파괴의 결과가 _____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라는 진술문을 제시한 후, 밑줄 안에 들어가는 가치대상들을 차례로 제시하고, 각각의 대상이 가지는 가치를 7점 척도로 측정하게 하였다.

환경오염 결과에 대한 지각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해 그 심각성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총 6개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은 개인에 미치는 환경오염 결과(개인적 결과의 지각; 「환경오염은 나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환경오염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미치는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역척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환경오염 결과(사회적 결과의 지각; 「환경보호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내가 사는 지역에서의 환경훼손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오염 결과(생태적 결과의 지각; 「일부 지역의 동·식물은 환경파괴로 피해를 입었을 수 있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역척도)」/「앞으로 십 년 이내에 많은 식물과 동물이 멸종될 것이다」)를 얼마나 심각하게 지각하는지 묻는 문항을 각각 두 문항씩 포함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결과지각 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 α=.64였다.

개인의 행위결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 개인의 행위결과가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지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개의 문항이 구성되었다(「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역척도)/「남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환경보호 노력은 별로 소용이 없다(역척도)」). 행위결과지각 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 α=.78이었다.

종속변인

환경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행동의 실행정도를 묻고, 아울러 환경행동의도와 환경관심을 반영하는 보다 간접적인 행동지표로써 환경정보탐색행동을 측정하였다.

환경행동 일반적인 환경행동은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수질보호 행동, 구매행동, 절약행동, 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환경행동 문항들의 신뢰도

는 Cronbach α=.91이었다.

환경정보탐색행동 환경정보탐색행동은 평소 생활 속에서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환경정보를 생태보호에 관한 정보, 생활 속 환경행동의 실천에 관한 정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정보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평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보탐색행동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환경정보탐색행동 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 a = .92였다.

결 과

환경가치차원의 확인

개인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을 통해 환경에 관련된 가치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이 세 요인들은 각각 자기중심가치, 사회-이타가치, 생태가치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환경가치차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표 1. 환경가치차원의 요인분석 결과

	자기중심 가치	사회-이타 가치	생태 가치
나 자신	.84		
나의 건강	.75		
나의 자녀들	.74		
나의 미래	.74		
개인적 생활양식	.73		
우리나라 사람들		.81	
우리 시(도) 주민들		.78	
세계의 어린이들		.77	
모든 사람들		.72	
인류의 미래		.68	
조류의 생존			.80
숲과 식물들의 생태			.76
해양생물보존			.76
동물보호			.75
고유값	3.43	3.47	2.95
설명변량(%)	24.50	24.76	21.10
누가설명량(%)	24.50	49.26	70.35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가치차원별로 문항을 분류하고, 각 가치측정문항에서 얻은 점수를 기준으로 피험자의 가치지향 유형을 「자기중심가치지향」, 「공동체중심가치지향」, 「생태가치지향」으로 분류하였다. 가령 자기중심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중심가치지향」으로 분류하였다. 또 「공동체중심가치지향」은 사회-이타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과, 사회-이타가치와 자기중심가치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중심가치지향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가치지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과 모든 문항들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생태가치지향」으로 분류하였다.

세 가지 가치지향집단별 가치측정 문항의 평균을 다음에 제시하였다(표 2).

표 2. 환경가치차원별 가치측정 문항의 평균

가치지향집단(n)	가치지향차원	평균	표준편차
자기중심(93)	자기중심	6.03	0.83
	사회-이타	5.19	0.98
	생태	5.02	1.05
공동체중심(64)	자기중심	5.74	1.05
	사회-이타	6.30	0.75
	생태	5.43	1.11
생태(77)	자기중심	5.87	1.05
	사회-이타	5.87	1.01
	생태	6.37	0.83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른 환경행동

가치지향에 따른 환경행동의 실행

생태중심가치지향 집단의 환경행동 수행이 가장 높고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의 환경행동 수행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치 차원을 축으로 피험자들의 집단을 분류하고 가치지향에 따른 환경행동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231)=5.18$, $p<.006$), 사후분석 결과(표 3), 생태가치지향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환경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치지향에 따른 환경행동의 평균값

가치지향집단(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사후분석(LSD)
자기중심가치(93)	4.74(0.84)	a
공동체중심가치(64)	4.68(0.91)	a
생태가치(77)	5.10(0.79)	b
계(234)	4.84(0.87)	

그러나 자기중심가치지향집단과 공동체중심가치지향집단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치지향에 따른 환경정보탐색행동

본 연구에서는 가치지향에 따른 환경행동의 일환으로, 환경정보의 탐색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생태중심가치지향 집단의 환경정보탐색행동이 가장 높고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의 환경정보탐색행동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가설 1-2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들이 평소 생활에서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환경정보를 생태보호에 관한 정보, 생활 속 환경행동의 실천에 관한 정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정보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가치지향에 따라 정보탐색행동의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정보탐색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231)=4.83$, $p<.009$). 사후분석 결과, 세 가지 유형의 정보분야에서 모두 생태가치지향 집단이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과 공동체중심가치지향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보탐색행동을 보였다. 자기중심가치지향집단과 공동체중심가치지향집단의 정보탐색 수준에는 의의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따라서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4. 가치지향별 환경정보탐색행동의 평균값

가치지향집단(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사후분석(LSD)
자기중심가치(93)	4.80(1.15)	a
공동체중심가치(64)	4.80(1.12)	a
생태가치(77)	5.30(1.19)	b
계(234)	4.96(1.17)	

이러한 경향성은 가치지향에 따른 환경행동실행 수준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환경적 가치지향은 환경정보탐색과 같은 간접적인 차원에서도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개인의 결과지각에 따른 환경행동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

환경오염의 결과를 지각할 때 환경행동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1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차이검증을 통하여 각 가치지향집단 별로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 정도에 따라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전체집단에서 환경오염 결과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 경우 환경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치지향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든 가치지향집단에서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은 경우 환경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 5. 환경오염 결과지각수준에 따른 환경행동

가치지향집단	결과지각수준 (사례수)	평균	t
전체	저(107)	4.46	6.50***
	고(127)	5.15	
자기중심가치	저(51)	4.49	3.03**
	고(42)	5.04	
공동체중심가치	저(39)	4.50	2.28*
	고(25)	4.97	
생태가치	저(37)	4.73	4.30***
	고(40)	5.44	

* $p<.05$, ** $p<.01$, *** $p<.001$

즉,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환경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위결과 지각

자신의 행위결과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각할 때, 환경행동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2를 확인

하기 위하여, 평균차이검증을 통하여 각 가치지향집단별로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 정도에 따라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의 행위결과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 경우 환경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지향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기중심가치지향집단과 생태가치지향집단의 경우 행위결과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은 집단의 환경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중심가치지향집단과 생태가치지향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결과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경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체중심가치지향집단의 경우에는 행위결과지각에 따른 환경행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따라서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6. 개인의 행위결과지각에 따른 환경행동

가치지향집단	결과지각 (사례수)	평균	t
전체	저(129)	4.70	2.76**
	고(105)	5.01	
자기중심가치	저(35)	4.55	2.16*
	고(29)	4.96	
공동체중심가치	저(59)	4.64	0.45
	고(43)	4.73	
생태가치	저(44)	4.91	2.32*
	고(33)	5.33	

* $p<.05$, ** $p<.01$

가치지향에 따른 환경오염 결과지각의 효과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결과지각의 범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각 가치지향 집단 별로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비중을 알아보았다.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으며, 피해의 종류에 따라 개인에 관련된 환경오염 결과(개인적 결과의 지각), 사람들에 미치는 환경오염 결과(사회적 결과의 지각), 생태에 미치는 환경오염 결과(생태적 결과의 지각)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에서 환경오염 결과 지각의 효과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은 환경오염의 결과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할 때 환경행동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적 결과의 지각, 사회적 결과의 지각, 생태적 결과의 지각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결과지각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의 경우, 개인적 결과의 지각이 환경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사회적 결과의 지각과 생태적 결과의 지각은 환경행동에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즉, 자기중심가치지향을 가지는 사람들은 개인에게 미치는 환경오염의 결과가 심각하다고 지각할 때 환경행동의 수행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개인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결과를 지각하더라도 환경행동의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표 7. 자기중심가치지향집단에서 결과지각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β	t	유의도
개인적 결과	.30	2.49	.01
사회적 결과	-.05	-0.46	.65
생태적 결과	.16	1.47	.14

R^2=.37

공동체중심가치지향 집단에서 환경오염 결과 지각의 효과

공동체중심가치지향 집단은 환경오염의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할 때 환경행동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동체중심가치지향 집단을 대상으로 세 가지 범주의 결과지각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동체중심가치지향 집단에서는 개인적 결과의 지각, 사회적 결과의 지각, 생태적 결

과의 지각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따라서 가설 3-2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표 8. 공동체중심가치지향집단에서 결과지각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β	t	유의도
개인적 결과	.22	1.49	.14
사회적 결과	.06	0.51	.61
생태적 결과	.18	0.18	.24

R^2=.38

생태가치지향 집단에서 환경오염 결과 지각의 효과

생태가치지향 집단은 환경오염의 결과가 개인과 사회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할 때 환경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3-3을 검증하기 위하여, 생태가치지향 집단을 대상으로 세 가지 범주의 결과지각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태가치지향 집단의 경우 생태적 결과의 지각과 사회적 결과의 지각이 환경행동에 효과를 미쳤으며, 개인적 결과 지각의 효과는 없었다(표 9). 즉 생태가치지향을 가지는 사람들은 환경오염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할 때, 그리고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할 때, 환경행동이 증가했다. 따라서 가설 3-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9. 생태가치지향집단에서 결과지각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β	t	유의도
개인적 결과	.015	0.128	.898
사회적 결과	.449	4.270	.000
생태적 결과	.244	2.220	.030

R^2=.59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람들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한 지각이 가치지향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환경적 가치지향은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개인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 자기중심가치, 사회-이타가치, 생태가치의 세 가지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치 차원에 따라 피험자들을 「자기중심가치지향」, 「공동체중심가치지향」, 「생태가치지향」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즉 생태가치지향 집단의 사람들은 자기중심가치지향이나 공동체중심가치지향 집단에 비해 환경행동의 수행과 환경관련 정보탐색수준이 모두 높았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결과지각과 환경에 대한 자신의 행위결과지각은 모두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오염의 결과를 높게 지각할 경우, 그리고 환경에 대한 자신의 행위결과를 높게 지각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환경행동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결과지각의 범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에서는 환경오염의 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높게 지각했을 때 환경행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생태가치지향 집단에서는 개인에게 미치는 환경오염의 결과보다는 모든 사람들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오염의 결과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했을 때 환경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가치지향을 가진 사람들도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한 지각에 따라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은(Oskamp, Burkhardt, Schultz, Hurin, & Zelezny, 1998; Schultz & Oskamp, 1996; Vining & Ebreo, 1990) 대부분 환경관심, 신념, 태도, 가치, 인구통계적 변인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해 왔으나,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환경보존 행동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지 못하였거나(Ebreo, Hershey & Vining, 1999), 환경행동의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Diekmann & Preisendorfer, 1998). 이러한 결과들은 단순히 변인들 간의 관계성만으로 환경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혹은 환경행동의 종

류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변인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른 환경행동의 차이를 알아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같은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환경적 가치지향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환경오염 결과의 지각이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결과에 대한 고려가 개인의 환경행동과 환경행동 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들(Joireman, Lasane, Bennett, Richards, & Solaimani, 2001; Strathman, Gleicher, Boninger, & Edwards, 1994)과 일치하는 것이다.

규준 활성화 모델을 따르는 연구들은 환경행동을 이타행동의 일부로 보고 친사회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환경행동 촉발 요인으로 미래 결과와 책임감에 대한 지각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이 사회-이타적인 가치만을 고려한데 비해, 본 연구는 생태가치와 자기중심가치도 미래결과의 지각에 따라 환경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사회-이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중심가치지향」집단의 경우 환경오염의 결과지각에 따른 환경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환경행동의 수행에 있어서도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 본 연구의 가치지향 측정 및 분류 기준이 이전의 규준활성화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과 달랐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Joireman 등(2000)의 연구는 이타주의, 협동심, 개인주의, 경쟁심을 측정하는 문항을 통해 피험자들의 가치를 측정하고 피험자들을 「친사회적(prosocials)」집단과 「친자기적(proselfs)」집단으로 나누어 이 두 집단의 환경행동을 비교한 반면, 본 연구는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자기중심가치지향」, 「공동체중심가치지향」, 「생태가치지향」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을 비교하였다. 친사회적 가치지향은 환경적 가치지향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가치지향이므로, 환경적 가치지향에 근거하여 집단을 분리할 경우 개인이 가지는 전반적인 이타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의 경우 뚜렷하게 높은 환경행동을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집단들의 경우 환경적 가치지향만으로 환경행동에서의 차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과 공동체중심가치지향 집단의 환경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인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Stern, Dietz, 및 Kalof(1993)는 타인의 복지에 대한 가치는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치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지향보다는 환경적 가치지향이 환경행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은 새로이 시도된 접근법이므로, 앞으로 연구의 축적을 통해 타당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생태가치지향 집단과 공동체중심 가치지향집단에 비해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에서 환경오염 결과의 영역에 따른 결과지각의 효과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기중심가치지향 집단의 경우, 개인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결과를 지각하더라도 환경행동의 수행에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개인에게 미치는 환경오염의 결과가 심각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환경행동의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오염이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환경행동의 수행이 적었지만($F(2, 115)=4.17$, $p<.05$), 환경오염이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게 되면 생태가치집단과 같은 높은 수준의 환경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중심 가치지향 집단이나 생태가치지향 집단의 경우에는 특정한 환경오염 결과지각의 효과가 이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은 합리적 선택 모델(rational choice model)을 통해 가능하다(Bamberg, Kuhnel, & Schmidt, 1999; Diekmann & Preisendorfer, 1998). 합리적 선택 모델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행동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행동은 다양한 행동과 연합된 행동결과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동기화된다고 주장한다. Diekmann과 Preisendorfer (1998)는 개인적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환경의식이나 환경지식이 환경행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환경의식이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합리적 선택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수행하는 반면, 개인적인 비용이 높은 것으로 지각될 경우 환경을 해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합리적 선택 모델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생태보호를 개인의 이익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적 비용'의 범주가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다. 합리적 선택 모델을 따르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상황에 따른 환경행동의 차이를 주요 변인으로 하여 상황에 따라 개인의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Derksen & Gartrell, 1993; Guagnano, Stern, & Dietz, 1995), 외적인 보상 없이도 환경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나 가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자기중심가치나 공동체중심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환경행동이 높으나,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오염의 결과가 개인에 미치는 피해를 높게 지각할 때 환경행동 수행이 생태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환경행동에 대한 가치의 영향을 환경오염결과의 지각이 어떻게 중재하는지 밝히고 있다.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결과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의 환경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한 지각과 개인의 행동결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환경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결과지각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 환경 커뮤니케이션은 전체적인 환경행동의 수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히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메시지보다는 이러한 환경오염의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하는 행동결과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의 환경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적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결과지각의 범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행동을 하도록 움직이는 요인이 개인이 가지는 가치지향의 차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록 자기중심가치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전반적인 환경행동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결과가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각할 경우, 이들의 환경행동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중심가치지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이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환경 캠페인과 같은 공공 커뮤니케이션이나 환경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자기중심가치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동물이 멸종된다거나 삼림이 파괴된다는 식의 메시지보다는 삼림파괴로 인해 그들이 숨쉴 공기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편이 그들의 관심과 행동을 유발하는 데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공동체중심가치지향집단과 생태가치지향집단은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공동체중심가치지향집단의 경우, 전체적으로 환경오염결과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행동이 증가하였으나, 환경행동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결과지각의 범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태가치지향집단의 경우에는 사회적 결과의 지각과 생태적 결과의 지각이 개인적 결과의 지각보다 환경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가지는 가치지향에 따라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결과지각의 범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동시에, 환경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는 가치지향에 따라 차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환경적 가치지향의 세 차원은 상호배타적인 차원이 아니다. 자기중심가치를 가진 사람은 타인이나 생태계의 안전과 이익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공동체중심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배제하고 사회의 이익에만 몰두하거나 생태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개인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고 생태

계의 안전에만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익광고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개인의 가치에 따라 메시지를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다른 가치지향집단에 비해 결과지각의 범주에 보다 민감한 자기중심가치지향집단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 메시지를 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정주부라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가지는 '가치'는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인구통계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심층면접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Bamberg, S., Kuhnel, S. M., & Schmidt, P.(1999). The impact of general attitude on decisions: A framing approach. *Rationality and Society, 11,* 5-25.

Clark, M. E. (1995). Changes in Euro-American values needed for sustainabil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1(4),* 63-82.

Derksen, L. & Gartrell, J.(1993). The social context of recycl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434-442.

Diekmann, A., & Preisendorfer, P.(1998). Environmental behavior: Discrepancies between aspirations and reality. *Rationality and Society, 10,* 79-103.

Dietz. T., Stern. P. C., & Guagnano. G. A(1998). Social structural and social psychological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 *Environment and Behavior, 39(4),* 450-471.

Ebreo, A. Hershey, J. & Vining, J(1999). Reducing Solid Waste Linking Recycling to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ism, *Environment and Behavior, 31(1),* 107-135.

Guagnano, G., Dietz, T., & Stern, P. C(1994). Willingness to pay for public goods: A test of the contribution model. *Psychological Science, 5,* 411-415.

Guagnano, G. A., Stern, P. C., & Dietz, T.(1995). Influences on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s: A natural experiment with curbside recycling. *Environment and Behavior, 27,* 699-718.

Hopper, J., & Nilsen, J. M.(1991). Recycling as altruistic behavior: Normative and behavioral strategies to exp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curbside recycling program. *Environment and Behavior, 23,* 195-220.

Joireman, A. J., Lasane, T. P., Bennett, J., Richards, D., & Solaimani. S.(2001). Integrating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the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within the extended norm activation model of proenvironmental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133-155.

Karp, D. G.(1996). Values and their effects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28,* 111-133.

Oskamp, S., Burkhardt, R., Schultz, P. W., Hurin, S., & Zelezny, L.(1998). Predicting three dimensions of residential curbside recycling:무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9 (2),* 37-42.

Oskamp, S.(2000). A sustainable future for humanity? How can psychology help? *American Psychologist, 55,* 496-508.

Schultz, P. W., & Oskamp, S.(1996). Effort as a moderator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 375-383.

Schultz, P. W. & Zelezny, L.(1998). Values as predictors of environmental attitudes: Evidence for consistency across 14 countr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9,* 255-265.

Schultz, P. W.(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45.

Schultz, P. W.(2000). Empathizing With Nature: The Effects of Perspective Taking on Concern for Environmental Iss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6,* 392-406.

Schwartz, S. H.(1992). Valuing "a clean environment:" Factor location, norms, and relation to ris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Schwartz, S. H.(1970). Moral decision making and behavior. In J. Macauley & L. Berkowitz(Eds.),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Stern, P. C.(1999). Information, incentives, and pro-environmental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olicy, 22,* 461-478.

Stern, P. C. & Dietz, T.(1994). The value basis of environmental concern. *Journal of Social Issues, 50,* 65-84.

Stern, P. C., Dietz, T., & Kalof(1993). Value orientations, gender, and environmental concern, *Environment and Behavior, 25,* 322-348.

Strathman, A., Gleicher, F., Boninger, D S., & Edwards, C. S.(1994). the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Weighing immediate and distant outcomes of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1611-1638.

Vining, J. & Ebreo, A.(1990). What makes a recycler? A comparison of recyclers and non-recyclers. *Environment and Behavior, 22,* 55-73. Vining, J. & Ebreo, A.(1992). Predicting recycling behavior from global and specific environmental attitudes and changes in recycling opportunit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 1580-1607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2, Vol. 16, No. 1, 19~34

The Effect of Environmental Value and Perceived Consequences on Environmental Behavior

Jae Hwi Kim and Eugene Park

Chung-Ang University

As public concerns for environmental issues are increasing, there is a need to identify discrepancy between environmental concerns or attitudes and environmental behaviors. This study supposes that this discrepancy can be caused by conflict between personal interest and collective interest. And Individual value orientation influences response to this kind of conflict. Respondents complete a questionnaire on environmental value orientation, perceived future consequences, and environmental behaviors. The survey analysis shows that biospheric value orientation group show more environmental behavior than other value orientation groups. Both of perceived future consequences and perceived self effectiveness on environment influenced on environmental behavior. And individual value orientation and perceived future consequences influence environmental behaviors, and perceived consequences mediate environmental behaviors, especially for the ego-centric value orientation group. Ego centric value orientation group shows less environmental behavior than biospheric value orientation group, but they show environmental behavior as much as others when they perceive threats themselves from environmental damage.

Keywords: environment, 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value orientation, perceived consequence

원고 접수 : 2002년 1월 5일
심사 통과 : 2002년 2월 3일